

오픈, 공유, 동의라는 단어가 요즘의 화두인데 실제로 오픈된 것을 공유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의 공용어인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그 인식에 대해 질문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배적인 언어로(세계의 공용어로 여겨지는) 혹은 지배된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에도 생과 사가 있듯이,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데 코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언어는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있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언어인 ‘키푸’조차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 권력에는 공포가 담겨
있는데 ‘키푸’도 공포의 요소로
사용이 되었을까?

아직 해독되지 않은 키푸의 내용이
숫자가 아닌 문자일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문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각기 다른 규칙으로 키푸를
만들었다면 (만약 화자들끼리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면)
컴파일링은 어떻게 했을까?

해커문화 - 새로운 영웅(!)신화 -
에 대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 - 다른 신화- 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신화는 어느 지점에서
갱신되어야 파시즘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역시 계속해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모으고
뽕족해지는 방향성을 뭉뚱그리며
굴러가야 하는 걸까? 그건 신화가 될
수 있나?

이 시대, 이 상황에 대한 예술의
역할,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짜 목적을 잃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을 잡아야 하며 어떻게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인공지능 모델을 인지
기능의(부분적) 외주화라고 한다면
그 외주화된 인지 기능을 가동하고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은 아마
대체로 빅테크 기업일 것이다.
사기업에 대규모의 인지 작업이
이전(?)되는 데 따른 사회 경제적,
정치적 함의는 어떻게 될까?

GPT-3를 만든 회사의 모토(?)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경로로
자본을 창출하려고 할까?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예술의
미래는? 이 시대에 예술가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을 번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번역 역시 해당 커뮤니티의
가치/접근성/주요한 사용자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고, 그 성격은
또다시 해당 지식의 접근 우위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다. 더
적극적인 ‘역-방향/양방향’의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적으로/외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공유/기여/수평적’ (?)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인터넷/알고리즘의 언어에서
말하는/쓰는 주체는 누구일까?

정말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걸 기술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걸까?

해커 신화의 가장 역설적인
현상이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히 그것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든다'는 이상을 배반하는 사례)

코드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왔다. 코드가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치가 투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예술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드넓은
접근 가능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라는 평준함은 과연 너무나
이상적이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모델이 메시지다>라는 글에서
"인공지능은 '물가에서' 세상을
보며, 어떤 면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어떤 면으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라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험이 진정으로 대상을
이해/경험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기억이 되지 않으면 (망각된
경험의 기억은) 진정한 이해/경험이
아닌 것일까?

창작자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창작을
한다면 기계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창작하는 것과 다른 구분점을 가질
수 있을까?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익을 위해, 또는 권력의 도구로써
이를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검열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었다)

람다나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매혹이나 공포의 반응들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에 대한 손쉬운
긍/부정은 <모델이 메시지다>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능이나 감성의
퍼포먼스, 혹은 충분한 현혹이
지능이나 감성의 소유/발현으로
이해받거나 혼동되는 현상과,
그러한 현상과 현상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간섭해야
하는가의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현재의 논의는 그
경계를 정의하거나 경계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조건에 집중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미’ 바꾸고 있는
혹은 우리가 이미 대답하고 있는
질문들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까?

번역에서는 기존의 맥락이 일부
소거되고 새로운 맥락이
덧붙여지는, 맥락/문화적 상상 등의
제거/첨가되는 과정 역시 발생하는
듯하다. 예컨대 mouse/souris는
글자 그대로 ‘쥐’를 가리키고,
컴퓨터는 ‘연산’ (computare) ‘
명령’ (ordinateur) 등을
지시/추측하게 할 수 있는 한편,
한국어권 사용자들에게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낯설고 새로운 느낌을 주는 듯하다.
하지만 언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불편과 조금 독립적으로,
이러한 다른 상태가 각
언어권/문화권에 발생시키는
효과들은 무엇이 있고, 이러한
효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